

문화비교를 통한 한국 춤과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각적 재해석

Visual Re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Argentine Tango through the Culture Comparison

허희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전공

윤주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디어디자인 전공

Heo, HeeJae

Dept. of Craft and Design, College of Fine Art, SNU

Eune, Ju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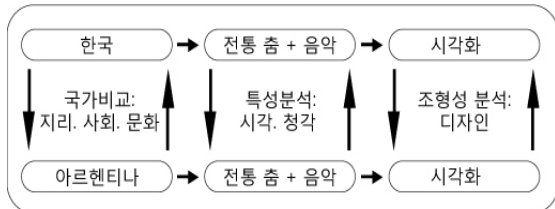
Dept. of Craft and Design, College of Fine Art, SNU

• Key words: 문화비교, 한국, 아르헨티나, 사물놀이, 탱고

1. 서론

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 접어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3국으로 대표되는 한·중·일에 대한 문화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선행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거주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통해 나라의 대표되는 색을 추려보고, 한국 전통 춤과 탱고를 감성이미지의 의미 분별 척도법으로 측정 후 분석하여 시각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물놀이와 탱고 춤의 특징을 파악하여 춤의 시각적 재해석을 통해 문화 비교 연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인 요소들이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색과 음이 강렬한 탱고와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민속악의 한 분류인 풍물놀이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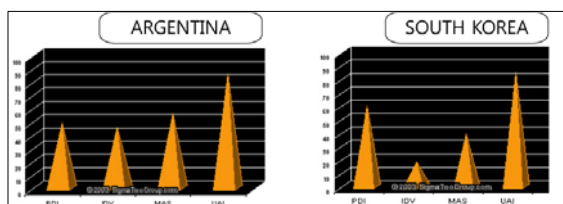
[표 1] 문화비교 및 시각화 표현 연구 방법



2. 한국과 아르헨티나

한국에서 땅을 파다보면 반대 남반구의 아르헨티나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 낮과 밤이 다르고 계절 또한 다른 두 나라는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인 흡스티드 (Geert-Hofstede)의 이론¹⁾을 살펴보면, 얼핏 보기에는 이질적인 것 같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예상과 달리 각 요소 값의 비율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표 2] Hofstede 이론을 적용한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문화



또한 아르헨티나는 한국처럼 군사정권시절이나 IMF 등 비슷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정치·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온 역사적 배경이 한국인의 배경과 비슷하여 정서면에서 비슷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3. 한국의 민속놀이와 아르헨티나 탱고

풍물놀이와 탱고의 공통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놀이 문화인 동시에, 공연예술인 것이다. 또한 우리 인생, 삶 자체의 보편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어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깊은 갈망을 표현한다.

3.1. 풍물놀이

한국 춤은 '신명'의 춤이다. 살이 깎수룩 응어리가 깊을수록 신명은 고조된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 충동은 극점에 오른다. 이때의 예술 충동이 신명이다.²⁾

풍물놀이의 가락 짜임새는 반복과 교체이며 사물놀이는 사물(꽹과리, 징, 장구, 북)을 중심으로 느린 가락에서 빠른 가락으로 조여 가는 틀을 가진 음악이다.

몸동작은 아랫노름과 윗노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랫노름은 주로 발동작을 일컫는데, 수십 가지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까치걸음, 절름발이 걸음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식 명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모를 쓰지 않는 전라도 지방의 풍물 굿이 비교적 화려한 아랫노름을 보여준다. 윗노름은 상모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돌려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가락에 따라 진풀이를 펼쳐가며 판을 진행하는데, 원진, 방울진, 미지기진, 오방진 등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1] 풍물놀이의 움직임



3.2. 탱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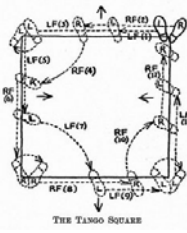
탱고의 황금기를 주도한 것은 음악에서부터였다. 반도네오이라는 탱고 특유의 악기는 탱고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르헨티나하면 떠오르는 음악과 춤이 바로 탱고³⁾이다. 구슬프고 애절한 노래이고, 연주인 이 음악은 욕망과 외로움을 표현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의 우수와 향수, 미래가 불안한 앞날에 대한 기대와 번민이 담긴 음악이다.

1) <http://www.geert-hofstede.com/> 2009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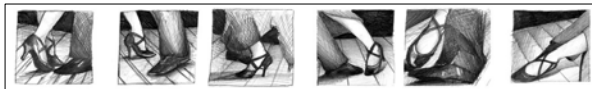
2) 멋과 신명의 소맷자락 <http://www.arthealing.net> 2009년 4월 1일

3)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를 '땅고'라고 부른다.

탱고는 노래와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다. 탱고의 가사는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탱고의 음악은 잔잔하고 애잔한 선율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한 비트가 반복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두 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베이스, 그리고 반도네온에 의해 연주된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빈민지역인 라보카(La Boca)에 성행한 2박자의 음악과 춤이었다.⁴⁾ 정열적이고 역동적인 춤이었던 탱고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하층계급의 춤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춤의 형태가 품위 있게 변화하였다.



[그림2] 탱고 춤의 움직임



4. 시각적 표현연구

디자인적인 접근을 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들 (태극기, 풍물놀이, 오방색, 기와집, 단청)을 뽑아 한국의 색을 추려 보았다.



역시 아르헨티나의 색을 고르기 위해 대표적인 이미지 (아르헨티나 국기, 초원, 리오델라플라타 강, 라보카 지역, 탱고)를 선택하여 대표 색상을 정하였다.



그리고 각 춤의 동작성 특징을 살펴보고 용어사전 등을 통해 수집한 형용사들 중 춤의 특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24개의 형용사로 축색하여 이미지 평가항목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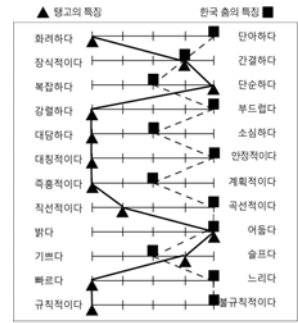
[표 3]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교기준

한국	아르헨티나
무기교의 기교	기교
태극선의 미	화려한 발동작
절제미	즉흥적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유로운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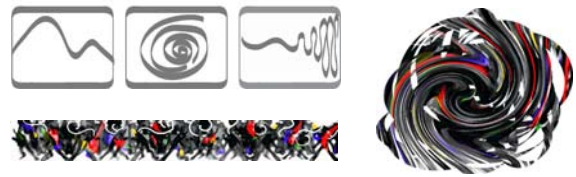
앞서 찾아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 전통춤의 경우 '단아하다', '부드럽다', '안정적이다', '곡선적이다', '느리다', '불규칙적이다'로 정리되며, 아르헨티나 탱고는 '화려하다', '강렬하다', '대담하다', '대칭적이다', '즉흥적이다', '빠르다', '규칙적이다'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장식적인 면과, 밝고 어두움의 정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본 후, 한국의 조형적 성격을 우리나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산들의 능선에서 나타나는 곡선미, 풍물놀이에서 볼 수 있는 나선형 움직임, 팽과리, 징, 장구, 북의 한국의 악기소리 등이

4)정호진, 아르헨티나 탱고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체육학회, 2000, p.41.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조여 가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탱고의 경우는 곡선의 느낌 보다는 초원, 평지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이미지, 탱고 스타에서 나타나는 대칭적인 움직임 그리고 반도네온이라는 독특한 음성의 탱고 악기로 더욱 애절해지고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음악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두 문화의 융합을 통해 공통적인 요소와 이질적인 요소가 만나 또 하나의 어울림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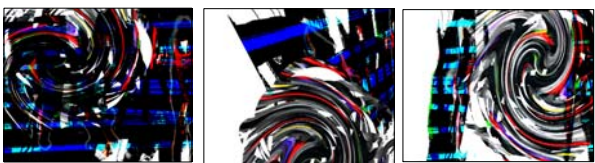
[그림3] 한국 춤 이미지의 시각적 재해석



[그림4] 탱고 춤 이미지의 시각적 재해석



[그림5] 한국 춤과 탱고의 융합: "어울림"의 예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지리적으로 거리감이 있으나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공통된 역사적·경제적 경험으로 인하여 동질적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여러 무용예술 중 탱고와 풍물놀이의 춤사위가 교감과 동질성의 융합이라는 디자인의 재해석에 새로운 소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비교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곡선과 직선이라는 대립적인 시각에서부터 흥과 한으로 해석되어지는 느리고 빠른 장단의 교차의 공존 자체는 이미 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춤을 통한 시각적인 표현, 다르고 같음에서 어울림으로라는 재해석이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비교문화를 위한 참신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하, 우리 문화유산으로 본 한국인의 기질 (한국의 형성과 정체성의 원류를 찾아서), 한반도, 2002
- 고부안,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미의 파리, 살림, 2004
- 김영호, 문신 예술의 신화 - 융합미학, 2008
- 정동암, 미디어아트, 디지털의 유혹,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정호진, 아르헨티나 탱고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00